

# 실직의 부정적 결과와 인지된 사회적 지지

이 은 주\*

## 1. 문제제기

인간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이다. 특히 사회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회노애락을 안겨주고 적응을 위한 개인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인 노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개인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스트레스 인자 중의 하나가 바로 실업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직업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적유대를 잃어 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비자발적인 실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들은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그들이 유지하던 많은 종류의 특권, 지위, 안정감을 동시에 상실하게 된다. 특히 실업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실업으로 인한 물질적인 곤궁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던 생활패턴을 중단하거나 위축시키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동안에 발생한 실업은 소득상실, 경제적 곤궁, 심리 사회적 증세, 사회적 자원의 감소,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의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런 생활사건인 실업을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으로 가정하고, 실업이라는 스트레스 인자가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직자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그 개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보건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해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 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 상태에 빠져있고, 그 이론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주요효과(main effect)와 완충효과(buffering effect)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자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그 이론을 조사하기 위해 적용된 자료수집과 연구방법론 활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론의 검증에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횡단적(cross-sectional)연구들에서 수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건강 결과들 사이에 관찰되어진 관계는 의사적(spurious)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Williams & House 1985; Thoits 1982). 첫째로,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역량대처와 같은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적응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Lazarus & Folkman 1984). 둘째, 사회적 지지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상태와 뒤섞여져 혼동되어 질 수 있다(Thoits 1982; Lazarus & Folkman 1984).

결국 기존에 진행되던 사회적 지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활용했던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었고, 본 논문에서는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 실직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직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복지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직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그리고 실직하게 된 사유의 차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실업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감정을 알아 볼 것이다. 둘째는 실직자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지지망의 파탄을 고찰할 것이다.

## 2. 스트레스와 사회자원 이론

### 1) 사회 스트레스 인자(social stressors)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들과 정신적인 고통이나 혼란을 연결하는 연구가정은 60년대 중반이래 사회병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적 발전이며 연구 프로젝트가 되어왔다(Lin and Ensel 1989)<sup>1)</sup> 이 연구의 대다수는 생활 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복지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화는 개인의 일상적인 적응능력에 부담을 주는 사회 환경적인 요구들의 출현에 의해 또는 목표하는 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자극을 강조한다(Lazarus 1966, Pearlin 1983, Menaghan 1983). 스트레스 인자는 도전하거나 장애가 되는 외적 상황이며, 스트레스는 내적 자극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외적인 조건 본래의 특징이 아니라 외적 조건들과 개인의 필요, 가치, 인지, 자원, 기술과 같은 요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Aneshensel 1992:16).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들은 진공상태에서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사회환경이나 개인들이 접하는 사회적 위치로부터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는 사회를 가로지르는 사회

1) 예를 들면, Holmes와 Rahe 1967; Dohrenwend와 Dohrenwend 1981; Myers, Lindenthal, Pepper와 Ostrander 197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계층 체계를 포괄한다. 계층체계는 계급, 지역, 성, 연령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체계는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와 사회구조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수반하며 그것들은 곧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경기침체나 정치혁명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저소득층 개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중심적인 축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졌거나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개인들은 비슷한 유형과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학적 스트레스 연구의 특징은 스트레스, 중재자(조정자), 그리고 결과로 구성되는 스트레스 과정의 구성요소가 사회적으로 유형화되어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Pearlin 1989: 243)2).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속해있는 사회환경과 구조는 개인들이 동일한 생활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인별로 다른 결과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스트레스 연구가 가져온 심리학적 또는 인간 내부에 대한 강조와는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회환경과 자원의 불평등 분배라는 차원에서 점점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자원과 심리자원

자원의 스트레스-완충효과의 과정이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이론은 자원이 스트레스 인자를 완화하거나 완충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Wheaton(1985)은 “자원이란 스트레스 결과를 완화시키거나 스트레스 결과를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자원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미미한 결과를 갖게 되는 상황의 조건이다. 이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반대된 자원이 출현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스트레스 효과를 종식하는 자원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증가에 의해 동원된다. Ensel and Lin(1991)은 자원을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심리적 자원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자원은 개인의 사회망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상징적 자산을 통해 강화되는 개인의 심리적 복지는 심리적 자원이 사회 자원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사회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 모두 개인이 관계하는 사회환경이나 사회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earlin(1989)은 스트레스 인자를 조정하는 요인으로 대처(coping),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기존중감(self-esteem), 자기통제(mastery)에 대한 자아개념(self-concept)을 들고 있다. 대처란 인생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들이 취하는 행동이다(Pearlin and Schooler 1978). Pearlin(1989)은 “대처의 중요한 점이란 학습되거나 내면화되어진 다른 행동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인의 소속집단이나 준거집단으로부터 학습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2) Dohrenwend와 Dohrenwend(1969)는 생활사건의 변화에 대한 계급별 차이가 심리적 손상을 경험하는 계급적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또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Jacobson 1986:252). 사회적 지지는 망과 지지를 수반한다. 개인들의 사회적 접촉은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 1차 적인 혹은 2차 적인, 그리고 강한 혹은 약한 관계(연대)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공식적인 지지와 비공식적인 지지로 구별한다. 공식적인 지지망은 개인이 지역사회나 공적인 관계를 통해 맺게 되는 인간관계망을 가리키며, 그 관계망은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개인이 맺는 사회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지지망은 직장,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고, 정서적인 지지보다는 도구적 (instrumental), 정보적(informational)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공식적 지지망은 개인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 맺게되는 가족 구성원들, 친구, 친척, 이웃을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의 개인들은 친밀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자원을 대표해서 포괄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중 특히 사회감성적 지지(socioemotional support)는 심리적 혼란, 육체적 쇠약 그리고 사망 등과 다양한 형태에서 역관계(inverse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다<sup>3)</sup>.

사회적 지지는 주요효과(main effect 또는 mediating effect)와 완충효과(buffering effect 또는 interacting effect)로 설명된다. 주요효과는 생활사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결과가 사회적 지지 요인들에 의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난다(Lin과 Ensel 1989:383). 사회적 지지의 주요효과는 긍정적인 결과, 예측가능성, 삶의 안정성, 그리고 자기가치의 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반적인 복지와 관련이 깊다(Cohen과 Wills 1985). 개인의 통합된 사회망은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개인이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입장은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역할로의 편입과 같은 사회학적 전망(Cassel 1976, Hammer 1981, Thoits 1983, 1985)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통합, 관계보상, 지위지지와 같은 심리학적 전망(Levinger와 Huesmann 1980, Moos와 Mitchell 1982, Reis 1984, Willis 1985)에 기초한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건강결과 상에 미치는 주요효과는 원래 사회적 고립이나 극히 제한된 차원의 사회적 접촉을 하는 개인들과 적당한 사회적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과의 비교에서 발생한다는 몇몇의 연구결과가 있었다(예를 들면 Berkman과 Syme 1979, House et al. 1982).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평가반응을 줄이거나 또는 방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사이의 관계에 개입한다고 전제한다. 즉 다른 사람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지는 상황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는 장애에 대한 잠재성을 재정의 하거나, 강제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지각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결국은 지극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상황을 막을 수도 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에 의해, 또는 직접적으로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의해 스트레스 경험과 병폐적 결과 사이에 개입한다

3) 예를 들면 Turner 1981, Aneshensel과 Stone 1982, Turner 1983, Kessler와 McLeod 1985.

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동료나 상사가 기꺼이 도움이나 반응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 것으로 측정되었다<sup>4)</sup>. 하지만 어떤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Pinneau(1976)와 LaRocco와 Jones(1978) 등은 그들의 연구조사에서 주된 효과는 존재하였지만 완충효과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고, 555명의 사회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 Jayaratne과 Chess(1984)는 사회적 지지가 직업 스트레스(예를 들면 역할 갈등과 역할 애매성)와 직업으로 인한 긴장(예를 들면, 신체적인 고통들)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주요효과 가설은 입증했지만 동료의 지지나 상사의 지지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긴장에 미치는 효과들을 완충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성숙진 1996).

### 3. 자료수집과 연구참여자의 특성

#### 1) 자료수집

본 논문의 자료는 2000년 12월부터 1월까지 서울시와 원주시에서, 2001년 5월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를 경험한 성인 남성 30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실직자들과의 면접 외에도 8개의 실업관련 단체의 활동가들이나 실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과의 면접을 통한 자료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존의 실업과 복지(건강) 간의 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의 대상인 인구집단과 다르게 개인이다. 분석단위로서의 개인은 그 개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자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직 후 겪게되었던 경험 또는 감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된 설문조사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들과의 심층적인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업자 개인들이 겪고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들의 언어와 표현방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다. 심층면접은 개인의 경험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데 적합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상세한 정보는 실업을 경험한 개인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지의 과정을 밝히는 데도 유용하다고 보았다.

4) LaRocco, House와 French (1980)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 1975년에 수집된 Caplan 등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측정하였다(성숙진 1996). Beehr (1976)도 역시 직업스트레스 촉발요인들(역할 애매성)과 심리적 긴장(낮은 자이존중감) 사이에 동료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완충효과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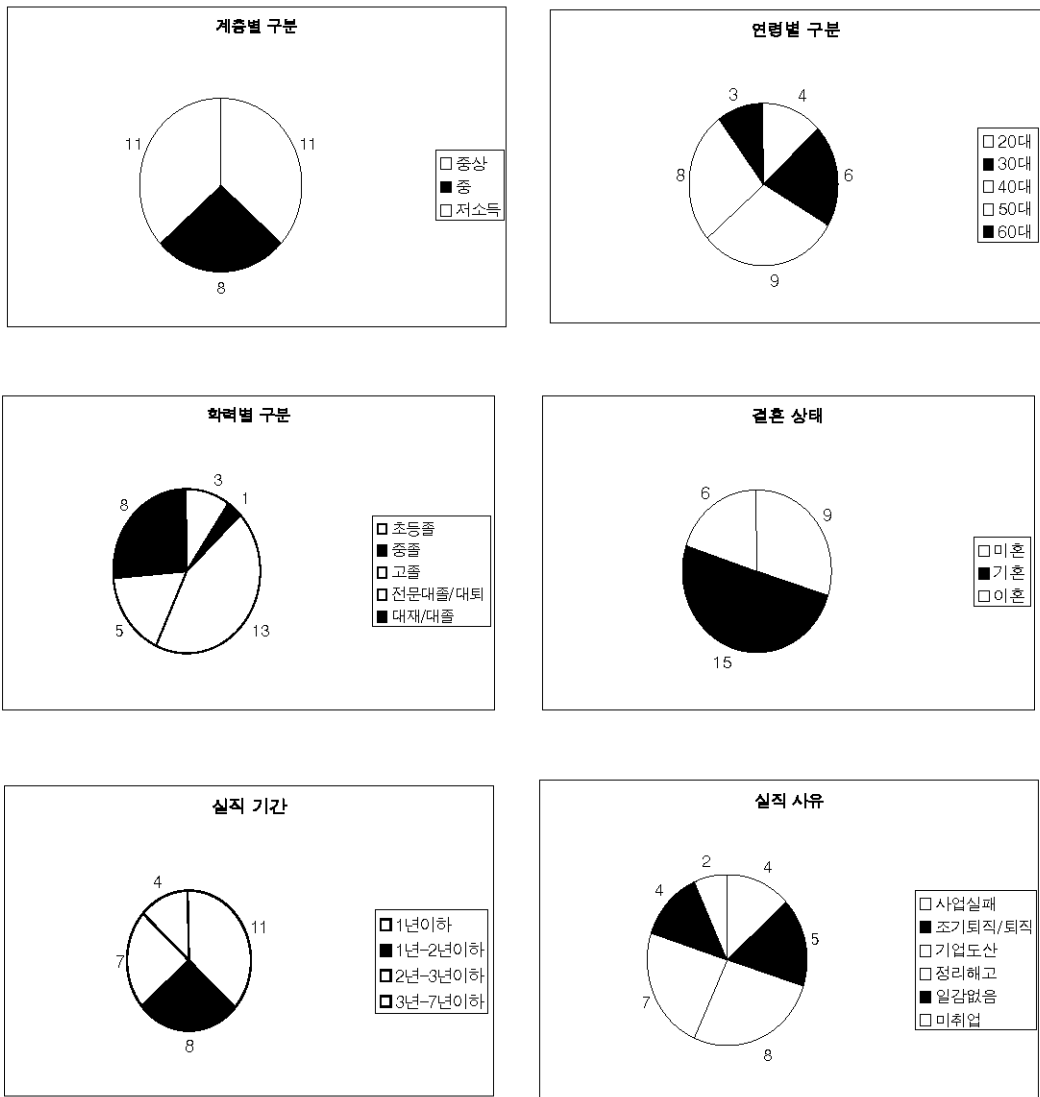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구청의 공공근로 담당 공무원들과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을 통해 연구자에게 소개되었거나 공공도서관, 공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본 연구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참여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면접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실업이 개인과 가족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실직을 맞은 후 갖게 된 생존전략과 대처방안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면접은 참여자 한 명당 2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장소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개인용 사무실 등 사생활이 철저히 보장된 곳을 이용하였고, 모든 면접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녹음된 면접내용은 본 연구자에 의해 녹취, 분석되었다.

## 2)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표 1>과 <그림 2>는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0세부터 65세까지 있었고, 20대 4명, 30대 6명, 40대 9명, 50대 8명, 60대 3명을 포함하였다. 결혼관계를 살펴보면, 미혼 9명, 기혼 15명, 이혼 및 별거가 6명이었으며, 교육정도는 초대졸 이상 12명, 고졸 13명, 고졸 이하 4명이었다. 실직 전 직업은 중소기업 사장 4명, 대기업 7명, 중소기업 및 생산직 12명, 건설일용직 4명, 대학 졸업 후 미취업 2명이었다. 실직기간은 6개월부터 7년까지였고, 평균적으로 2년 3개월이었다. 4년 이상의 장기 실직자들은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실직상태에 있었으나 경제위기 후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직의 원인으로는 사업실패가 4명, 조기퇴직 4명, 기업도산 8명, 정리해고 7명, 건설 일용직으로 일감이 없는 경우 4명, 그리고 대학졸업 후 미취업 2명으로 분포되었다.

<표 1> 참여자들의 특성

사 례	계층	나이	결혼상태	학력	실직기간	실직 전 직업	실직 이유	생계수단
1	중상	48	이혼	초대졸	5년	출판사 사장	사업실패	공공근로
2	중상	55	기혼	대졸	1년	은행 지점장	조기퇴직	저축액
3	중상	59	기혼	대학	3년	공장운영	사업실패	친구원조
4	중상	59	기혼	고졸	8개월	공기업 부장	조기퇴직	저축액
5	중상	65	이혼	고졸	1년	화학공장 운영	사업실패	공공시설 거주
6	중상	65	이혼	대 학 중 퇴	5년	하청건설업체 운영	사업실패	친구도움
7	중상	50	기혼	대졸	3년	건설회사 부장	기업도산	저축액
8	중상	64	기혼	대 학 중 퇴	3년	건설회사 차장	기업도산	친지의 도움
9	중상	39	기혼	대졸	3년	건설회사	기업도산	배우자
10	중상	38	기혼	대졸	3년	건설회사	기업도산	배우자
11	중상	35	기혼	대졸	3년	건설회사	기업도산	배우자
12	중	32	기혼	고졸	1년	공기업 기술자	조기퇴직	공공근로
13	중	29	미혼	대졸	3년	졸업 후 미취업	미취업	부모
14	중	55	기혼	고졸	2년	백화점경비	정리해고	공공근로
15	중	42	기혼	고졸	2년	공장 기술자	정리해고	배우자, 저축액
16	중	44	기혼	고졸	1년	사무직	퇴직	배우자
17	중	25	미혼	초대졸	6개월	졸업 후 미취업	미취업	공공근로
18	중	36	미혼	대졸	4년	편집	기업도산	공공근로
19	중	24	미혼	고졸	1년	사무직	정리해고	공공근로
20	저소득	54	이혼	중졸	2년	건설일용직	일감없음	공공근로
21	저소득	42	기혼	초등졸	1년	요리사	정리해고	공공근로
22	저소득	28	미혼	고졸	7개월	사무직	기업도산	공공시설 거주
23	저소득	34	이혼	고졸	8개월	생산직	정리해고	부모
24	저소득	55	기혼	초등졸	2년	건설일용직	일감없음	공공근로
25	저소득	42	이혼	초대졸	2년	컴퓨터 프로그래머	정리해고	공공근로
26	저소득	40	미혼	고졸	1년	생산직	정리해고	공공근로
27	저소득	42	미혼	고졸	7년	생산직	퇴직	공공근로
28	저소득	41	미혼	고졸	2년	건설일용직	일자리 없음	공공근로
29	저소득	52	미혼	초등졸	2년	건설일용직	일자리 없음	공공시설 거주
30	저소득	42	기혼	고졸	2년	생산직	기업도산	배우자, 저축액



<그림 2> 참여자들의 계층, 연령, 학력, 결혼상태, 실직기간, 실직사유별 분포

#### 4. 실직자들의 사회적 지지망

##### 1)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차이

개인이 어떤 계급적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사회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 계급은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Scambler and Higgs 1999: 275).



Turner(1995:214)는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자 계급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같은 상태의 중간계급은 자기존중감(self-esteem)과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Morse and Weiss(1955)는 중간계층의 직장인들에게 일은 무엇이든 흥미로운 것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목적 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면, 노동자계급은 본질적으로 일을 활동과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여 무료하게 누워서 뒹구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개인의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맞게되는 생활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느냐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성의 구조와 과정(특히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이 사회계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증거는 드물고 모순적이다. 어떤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은 질적으로 허약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지만(Belle 1982; Dohrenwend and Dohrenwend 1970), Ensel(1986)의 대규모 지역사회연구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계급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은 그들의 관계가 물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들 보다 주변인들과 더 진실하고 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안의 가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지만 끈끈한 가족애를 공유하고 있으며, 부유한 집안은 비교적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가족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물질적 자산이 가족관계와 기타 가족 외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은 실업이라는 생활 사건으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기존에 자신들이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사회 지지망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들은 학력을 기반으로 한 인맥관계의 층이 얇으며,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 안에서 견고한 동료관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불안정한 직업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어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때문에 실업 후 더 높은 빈도로 가족, 친지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피하며 산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사회망은 실직 후 더욱 좁아지고 제한되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강도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했다. 다음은 백화점 경비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로 실직을 하게 된 참여자(55세)와의 면접 내용이다.

IMF 이후로 친구들 안 만나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있으니까 내 자신이 용납이 안돼요. 내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안 만나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친구들은 걱정은 하는데 헛 업살이죠. 말로만 하는 거죠.

저는 탁구나 등산 같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낚시도 자주 했거든요. 도구도 다 있고. 토요일에 떠나면 일요일 저녁에 오곤 했는데 이젠 그런 신경이 안 써져. 낚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거든. 놀러가기가 싫어. 같이 가서 남이 한 병 사주면 나도 사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산도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지. 관악산도 수 없이 갔죠. 봄, 여름 수 없이 갔었는데 지금은 안 가요. 나는 요즈음 토요일, 일요일에 TV만 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기도 싫고 어디가면 맨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나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하니까 심심해서 동생네 집에 왔다갔다해요. 우리 동서가 나한테 잘해요. 근데 안 간지 한 4개월 돼요. 가기가 싫어요. 오라고는 하는데 가면 잘해놓고 사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해도 그게 잘 안되고, 열마를 벌었네.. 그런 말 듣기도 싫고...

이 참여자는 실직 후 배신감과 수치심에 휩싸였고 화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였다. 실직 후 친지, 친구,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두문불출하며 살다가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동료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기존에 자신이 맺었던 사회적 관계는 경제적, 감정적인 이유로 기피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완충하는 데 배우자와 형제자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자살은 주변관계와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의 표출이다. 그 참여자는 자살기도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속에서 공식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실직의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실업 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은 비공식적 지지보다 공식적인 지지(사회단체, 자선단체, 공공기관, 종교기관)에 더욱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중간 정도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소유한 개인들은 가족, 친지,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실업 후에도 그들이 과거에 맺어온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실업 전 그 개인들이 유지했던 경제적 안정이 상호지지적 대인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설명된다. 가족관계에서 살펴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중간층은 실업 전 그들의 부모나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직 후 가족과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폭넓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친구들은 실직한 그들에게 정보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간층 장기 실업자들은 실직 후 짧은 기간동안 오래된 친구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집단은 자신들의 비공식적 지지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이나 정부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아주 낮았다.

결국 본 연구에서 실직을 경험한 개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성을 보였으며, 특히 경제적 궁핍은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망의 유지, 발전에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망과 자원의 양과 질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예를 들면, Fischer 1982). 하지만 사회적 지지 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증가하는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의 하락(Zantra 1983), 연령에 따른 차별성의 부재(Turner and Wood; Turner and Noh 1988), 그리고 증가하는 연령과 함께 사회적 지지도의 증가(Lin et al 1986) 등 상당히 불일치한 보고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면접결과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지지망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낮은 지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은 대단히 일반적이다. 부모는 자신들이 죽음을 맞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물질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는다. 반면, 연령의 증가는 부모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게 하며, 오히려 부모세대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더욱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중상, 중간 계층의 부모는 그들의 기혼, 미혼 자녀가 실직을 하였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는 그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비공식적 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가사 일을 돌보거나 아이양육을 보조하면서 자녀들을 지원한다. 결국 연령의 증가는 부모라는 최고의 잠재적 지원자를 잃게 되는 확률이 높으며, 비록 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연로함으로 인해 지지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대학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여 친구들의 컴퓨터를 수리해 주며 약간의 용돈을 마련하고 있는 참여자(29세)와의 면접 내용이다.

제 부모님들은 매달 20만원씩 보내주시고, 쌀과 김치도 집에서 가져다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두건씩 컴퓨터 고칠 일이 있으면 수리하고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죠. 세금 내고, 담배사고, 음식물 사는데 한 달에 30만원 정도 씩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차로 날라다 주십니다.

부모 외에도 배우자가 높은 강도의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는 또한 배우자의 상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실업자들은 자신들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으나 연령이 높아 갈수록 혼자 살거나 아주 드물게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사는 참여자들의 가족 간 갈등은 매우 높았으며, 그 중 한 참여자는 아들의 집을 나와 자살을 기도하였고 몸을 회복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숙자

쉽터에 머물고 있었다.

동시에 노인공경과 노인보호에 대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두 세대 간 지지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성인 자녀를 둔 본 연구에 참여한 실직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부모공경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성인자녀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부모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했을 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물질적, 정서적 지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지점장으로 일하다 조기퇴직한 참여자(55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저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면 취직을 했습니다. 대부분 결혼 전에 전세비용을 벌어서 저축해 놓거든요. 저는 30세에 결혼을 했는데 큰놈은 올해 27살이고 작은놈은 25살인데, 개들이 아직도 학생입니다. 아들 둘 다 의대를 다니거든요. 의대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학비뿐만 아니라 책값, 밥값, 교통비, 옷값으로 일주일에 10만원씩 따로 줍니다. 이러다가 제가 저축한 돈 대부분을 자식놈들 대주다가 다 써버릴 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험드실 것 생각해서 학교에 돈 내는 것도 가능하면 늦게 얘기했습니다. 잘못 키웠는지 여자친구랑 밤마다 전화해서 핸드폰 통화료가 10만원이 넘게 나왔지 뭐니까? 그런데도 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혼낸다고 원망을 합니다. 자식은 전생에 원수였거나 빚쟁이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듭니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실직 후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태도 문제로 아들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아들들은 자신의 퇴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가정의 실직으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손실이 치명적인데도 아들들이 절약하는 근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부모세대가 자녀에 대해 인지하는 낮은 지지도를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지탱해오던 전통적인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물질적 정서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즉 노후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착실히 경제적인 준비를 해서 실버타운에 가서 살겠다는 등의 자녀와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실직의 원인

실직의 원인은 실직의 기간만큼 실직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개인들의 직업력을 살펴보면 실직의 사유는 매우 복잡하여 한마디로 간결하

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먼저 대다수의 개인들은 일생동안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되거나 동일 직종 내에서 몇 차례의 이직을 경험한다. 또한 현재의 실직은 어떤 개인에게 그(녀)가 일생에서 겪은 여러 번의 실직 중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개인에게는 최초의 실직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실업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지만 과거에 어떤 직업과 직위를 소유했느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실직으로 인한 감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직의 사유도 편의상 몇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전제해야만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실직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기퇴직, 정리해고, 사업실패, 일자리 없음, 그리고 졸업 후 미취업이다. 조기퇴직자들은 연령대가 높은 50대의 대기업 명예퇴직자들로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퇴직을 한 경우, 30대의 회사원 중 퇴직금을 받아 자기 사업을 도모한 경우, 혹은 경제위기 이전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한 후 갑자기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에 실패한 경우였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도산이나 인원감축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하여 회사와 감원되지 않은 동료에 대한 높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실패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경제위기 전후로 도산을 하여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실직의 부정적 결과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실패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고갈과 친구 및 친지에게 금전적으로 심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 후 사회적 지지망의 파탄으로 결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출판사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아내가 가출하고 채무문제로 도피 생활을 했던 참여자(48세)와의 면접내용이다.

형제에게 받은 건 없구요. 그 전에 보증문제가 있어서 형제들이 노여워했기 때문에... 보증 피해본 형제들이 노여워했죠. 그러다 소식이 끊어졌어요. 이사를 몇 번 가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연명하던 참여자들은 경제위기 동안 건설경기의 침체로 일감을 찾지 못해 극도로 빈곤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건설현장에서 팀을 이뤄 일하던 건설일용직 근무자들은 일감의 부족으로 팀원을 축소가 불가피했고, 팀에서 해고된 실직자들은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료에 대해 높은 배신감을 표현했다.

친구들이 일을 안 주더라고.. 내 일꾼 있는데 하면서 안 주더라고.. 그래서 친구도 금전에서는 아니구나 생각했죠. 너무 허무하지. 무너지는 것 같지. 그 친구는 둘도 없었는데 나 여기 있으면 저 여기 있고 그랬는데..

자꾸 일이 줄고 그러니까.. 일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일하고, 새벽에 나가봐도 그렇고.. 들어와서 한숨만 쉬는 거죠. 진짜 이렇게 일이 없나 싶고.. 이뉘 간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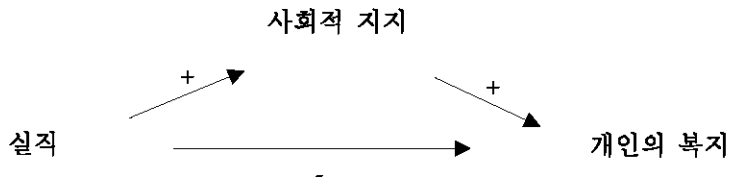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차단되어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연령이 낮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어서 극도의 경제적 궁핍은 경험하지 않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실패나 건설일용직 실직자들은 정리해고, 조기퇴직, 미취업자들에 비해 실직의 폐해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심각했고 그 결과는 그들이 실직 전 인지하던 사회적 지지망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업실패는 실직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직자들은 심장병, 심근경색, 고혈압,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은 높은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실직 전 직장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미취업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많았고, 그 결과 협소한 대인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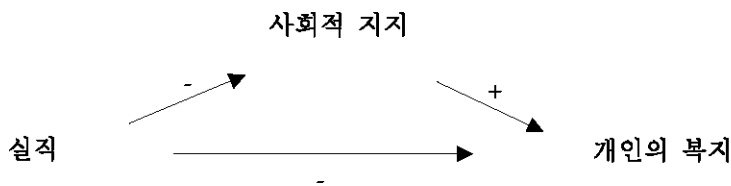
## 5. 사회적 지지의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손실

<그림 2>는 실업이라는 스트레스 인자가 개인의 정신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도표화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업이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면 실업과 정신적 만족감과의 관계는 부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의 결과는 개인이 인지하거나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른 결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동원(Support Mobilization)은 사회적 지지가 실업이라는 스트레스 인자의 출현에 의해 동원되어져서 실업이 개인의 정서적 만족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한 유형이며, 사회적 지지 이론의 완충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인 사회적 지지의 파탄(Support Destruction)은 실업의 발생으로 인해 개인이 기존에 소유하거나 인지하고 있던 사회적 지지망의 손실을 맞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만족감에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실직으로 인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지망의 손실을 경험하여 정서적으로 분노와 좌절을 겪게 되었던 사례가 있었고 이는 실직의 사유와 실직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1) 사회적 지지의 동원(Support Mobilization)



(2) 사회적 지지의 파탄(Support Destruction)



<그림 2> 사회적 지지의 복지(정신적 만족감)에 대한 효과

(1) 사회적 지지의 동원

사회적 지지는 그것이 생활사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하거나 생활사건에 직접적으로 반작용을 일으킬 때 완충작용을 하게 된다(Lin et al. 1985: 250). 반작용의 상황은 사회적 지지가 반대 상황(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결합을 창출하는 것)의 발생에 의해 동원되어지는 것이다.

갑작스런 실직을 겪은 개인은 가족이나 동료들의 위로와 용기, 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직을 겪게 된 후 그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아내와 자녀들이 취업을 하여 가계에 보탬을 주는 경우도 실직자에게 도움이 된다. 다른 실직자는 가족이나 친한 동료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지지로 인해 실직의 여파에 따른 자아존중감이나 자부심의 손실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종류의 사회적 지지는 실직 후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실직의 부정적인 결과를 막고, 그 결과 실직스트레스를 통제하거나 실직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동원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소유한 실직자에게 주로 나타났다. 그들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할 당시 안정적인 임금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창출하고 확고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조기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참여자들은 사업실패나 미취업자에 비해 더 많이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였고, 지지망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잘 알려진 건설회사의 엔지니어로서 일하다가 기업도산으로 실직을 하게된 참여자(37세)는 실직 전 비교적 높은 급료와 안정된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장 총 책임자의 역할을 맡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해외에 파견근무를 한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실직을 한 직후 그의 아내는 백화점의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장의 실직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동시에 그는 실직 후 그의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로부터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면접 내용이다.

형제들이 잘 해요 저 같은 경우 회사가 부도나고 월급도 안나오니까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저 모르게 집사람에게 쓰라고 50만원을 주었고 형수님이 와서 한 20만원 갖다주고 주변에서 형제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저한테 얘기하면 안 받을까봐 모르게 주었다고요.

애들 앞으로 만들어 두었던 차세대 통장을 해약하고, 주택은행 것만 3개를 해약하니까 7백만원쯤 되었어요. 시골서는 돈이 없는데도 돈 좀 해주셨어요. 부모님께 잘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돼요. 특히 아버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지금은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죠. 형님이 경찰 간분데.. 아버님은 '형 보다 나를 더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했죠.

동창들 만나는 데는 전혀 달라진 것 없어요. 회사와 싸울 때는 친구들이 천막에 와서 라면도 사고 우유도 사고.. 밤에 데리고 나가 술도 사주고요. 지금도 취업관계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죠.

이 참여자는 실직 후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적극적인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 가계저축액과 부모 형제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었고, 배우자의 취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곤궁함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실직이라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이 주변관계의 정서적인 지지로 인해 자기존중감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 특히 부친의 그를 믿는다는 확신과 형제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행동과 언어적 지원은 그가 실직 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적 지지의 파탄

실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중의 하나는 그 개인이 실직 전 유지하고 있던 관계망의 부분적 또는 총체적 파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실직에 관한 선행연구가 보고하는 가정파탄도 개인이 가지고 있던 비공식적인 지지망 손실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가 도



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지했던 사회적 지지망이 지지의 제공이 아닌 갈등을 유발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사례에서도 고찰되었다.

연구참여자들 중 실업 전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거나, 학력이 낮거나, 실직의 원인이 사업 실패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에 그 개인들은 실직 후 가까운 인적관계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받기보다는 비난과 고립을 경험하였다. 특히 가족구성원들은 가장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힐난하였고, 이 경우 실직은 가정파탄, 실직자의 가출 및 노숙, 실직자의 자살기도와 같은 극도의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지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친구나 친지와와의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맺고 있던 관계를 벗어나서 그들이 대면을 하여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인적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인적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관계망은 새로운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단체와 같은 공식적인 지지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실직 전 불안정한 직업과 낮은 급여를 받았던 참여자들 대부분은 실직 후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실직의 문제를 완충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은둔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매우 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의 실업은 가족구조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최고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관계인 가족은 경제적 궁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의 실직 이전에도 이미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던 빈곤층의 가정은 외적 자극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파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직의 사유는 사업실패였다. 사업의 실패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는 실직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의 완전한 실패를 겪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실직 후 사회적 지지의 철저한 파탄을 경험하였다. 배우자와의 이혼, 자녀와의 결별을 비롯한 가정파탄과 채무문제로 친지, 친구들이 외면하여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업실패로 실직하여 가정파탄을 겪은 참여자(65세)와의 면접 내용이다.

태어난 곳은 강원도 횡성이고,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쳐서 학업도 다 끝마쳤고 사회생활도 충실하게 하다가 사업이 잘 안돼 쇼크로 중풍을 앓았어요. 94년에 우리 막내가 대학을 들어 갔는데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했죠. 전공이 피아논데 이태리로 가고 싶다고 했고 저는 감당을 못하게 되면서 병으로 가더라고요.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업이 잘 안되니 건강이 극도로 악화 됐는데 사업이고 뭐고 몸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혼자서 보내는 세월을 지냈죠.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환자들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나는 늦더라고요. 그게 장애가 되고 장애인 등록을 했죠.

집안사정도 가족들이 거부를 해요. 젊은 나이에 정신 마작 차리고 일 안하고 병을 얻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충분히 못하니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가족은 집사람과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장가를 갔고, 딸을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집사람과는 결별 상태죠. 한 5년 됐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해요. 나는 미치도록 보고싶지.

내 성격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아해도 남에게 피해는 안 줘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집사람은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갈등이 커졌죠. 내가 병이 날 무렵에 집사람이 가출을 했죠. 집사람은 편견이 심했어요. 지금도 죽고 싶은 충동이 일고 그래요. 시도도 했죠. 약도 먹어봤고, IMF 전후로 외롭고 그림고, 내가 하고싶은 것을 못하니 스트레스만 쌓이고...

이 참여자는 사업실패 후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중풍을 앓게 되었다. 그의 실직은 배우자의 가출, 자녀와의 결별, 그리고 친구들과의 단절로 이어져 그가 실직 전 유지하던 모든 사회적 지지망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실직 전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친구나 친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실직 후 가족이나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취업의 길이 막히고, 비공식적 관계망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허름한 여인숙에서 기거하며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식사로 하루 두끼를 연명하고 있었다.

다음의 참여자는 사업실패로 실직하여 아들의 집에 기거하다가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자살을 시도하였다. 병원치료를 받은 후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숙자 쉼터에 기거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집도 다 날아가고, 일본에 계신 형님에게 들어가 살려고 부산에 계신 다른 형님에게 갔는데 형님도 새로 도로보수를 하다가 실패해서..., 일본 형님에게는 연락이 안되고, 일본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부산형님과 같이 일본에 가려고 했는데 형이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혼자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집에 한두 달 있어보니까 참 힘들어요. 어렵고 부담스럽고. 어느 날 술을 먹고 천호동 공원에서 잤어요. 007가방 들고 여권 갖고, 거기서 취약과 술을 먹고 2000년 9월, 죽을 생각이었어요. 13년 전 집사람과 헤어지고 혼자 해보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남모르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깨고 나니까 병원에요. 나중에 행인이 119에 신고해서 강남 시립병원에 입원을 시켜대요. 그런 다음 노상에 쓰러진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데서 한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당뇨도 있었고 위도 잘 못돼 지금도 위궤양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퇴원하고 어디로 갈 거냐고 해서 나는 아무도 없고, 아들은 있지만 갈 테도 없다고 했더니 여기 자유의 집(노숙자 쉼터)을 소개받고 퇴원하자마자 왔어요. 추석 때 왔어요. 여기는 한 석 달 됐는데 당뇨치료를 받고 있어요. 12월 31일까지 경비를 봤죠. 경비는 밤을 세워야 하는데 당뇨도 있고 말도 이상하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해서 그만뒀죠. 그래서 풍인 것 같아 한의원에 갔더니 아니라고 해서 어제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다 먹고 있어요.

이 참여자는 1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3명의 자녀를 키우며 살았다. 그 후 자녀들은 모두 결혼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여 큰아들의 집에서 기거하였지만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고 다른 자녀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자신의 무능력과 자녀들의 외면에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자녀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질병이 깊어지는 이유는 외로움과 서러움 때문이라고 밝혔고, 기회가 닿는다면 자신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어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했다.

위의 두 사례는 실직이 개인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정서적 불안감과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실직자들은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극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낮은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었던 실직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저학력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불안정하고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직업은 그들을 실업 전부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게 만들었다. 이 경우 실직자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확신을 적게 가지고 있었고, 쉽게 자신의 미래 계획이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공식적 지지망이 부재한 실직자들은 실직 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노숙자나 공공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사업실패로 실직을 한 경우는 실직 전부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손실을 겪기 때문에 실직 후 자신이 과거에 맺고 있던 모든 관계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 6. 토의와 맺음말

본 논문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이론을 적용하여 199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직을 하게된 성인 남성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제위기에 의한 실업이 스트레스 인자(stressor)로써 간주되며, 실직자들의 통합적인 사회망과 인지된 사회적 지지는 실업이라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완충하는 인자로서 적용되어 이러한 관계가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반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 분석해 보았다. 실업은 개인의 물질적, 보건적, 교육적,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생활상의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는 개인의 총체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또한 실직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실직을 이해하며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고 동원하는 데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을 당한 참여자들과의 면접으로 다음의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

첫째, 높은 사회적 지지를 인지한 실업자들은 낮은 사회적 지지를 인지한 실업자들에 비해

5) 하지만 실직을 받아들이는 개인적 편차도 고려해야 한다. 직무불만족이나 동료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에게 실직은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싶었던 개인에게 명예퇴직은 학업을 지속할 비용과 시간을 얻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덜 부정적인 감정(좌절감, 무력감, 분노 등등)을 표출했다. 높은 지지를 인지하는 개인들은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삶의 도전에 대항하여 더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만, 낮은 지지를 인지하는 개인들은 미래에 대해 체념적, 비관적이며 신체적인 건강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그 개인들의 실업 전 사회경제적 지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았던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업의 부정적 결과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 특히, 빈곤은 개인이 사회적 지지망을 유지하고 확고히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며, 가족관계의 질도 그 가족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받으므로 상호 지지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질적 조건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실직으로 가족 파탄이나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저소득층 참여자들에게 공식적 지지망인 지역사회 자원, 종교기관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및 취업교육은 저소득층 실직자들이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했다.

셋째, 실업을 경험한 개인들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고, 이는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직 후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는 개인들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데 유리했던 반면, 사회적 지지의 동원으로 실업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하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사업실패로 실직을 한 경우의 개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자살이나 극단적인 정서적 혼란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이 높을수록 이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경제적 곤란함과 심리적 위축 때문에 자신의 사회망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수동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들은 사회적 지지망의 파탄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실직으로 이혼이나 자녀와의 결별 등의 가정파탄을 겪거나 금전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소원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은 실직으로 자원을 고갈하여 사회적인 유대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개인이 과거에 맺어왔던 사회망과의 교류를 기피하거나 극도로 제한된 사회활동만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실직 전 직업, 실직의 사유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중간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학졸업자, 실직 전 대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망의 유지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다른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사회망의 손실을 경험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맞게 되는 개인의 실직은 가족 및 친지를 비롯한 비공식적 사회관계가 지지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어려움을 노정한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평생고용 개념의 붕괴로 인해 직장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비공식적 관계로부터 적당한 지지를 인

지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정서적, 도구적 안정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 개인들이 실직의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근로나 지역 사회단체의 도움에 더욱 의존했던 것을 본다면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확고한 사회 안전망의 확보와 지역사회 및 공공, 민간 기관을 통한 실직자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성숙진. 1996.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연구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 4:105-124.
- Aneshensel, Carol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5-38.
- Aneshensel, C. S. and R. R. Frerichs. 1982. "Stress, Support,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Causal Mode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363-376.
- Beehr, Terry. 1976. "Perceived Situational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Role Ambiguity and Role Strai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 35-40.
- Bell, R. A., J. B. LeRoy and J. J. Stephenson. 1982. "Stress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7: 4-35.
- Berkman, L. F. and S. L. Syme. 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A Nine Year Follow-up Study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2): 186-204.
-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2): 107-123.
- Cohen, Sheldon and S. Leonard Syme.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Pp. 3-22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ed. by Sheldon Cohen and S. Leonard Syme. Orlando: Academic Press Inc.
- Hammer, M. 1981. " "Core" and "Extended" Social Networks in Relation to Health and Illn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7: 405-411.
- Holmes, T. and R. Rahe.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ouse, J. S., C. Robbins, and H. L. Metzner. 1982. "The Associ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with Mortality: Prospective Evidence from the Tecumseh Community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6: 123-140.
- Jacobson, David. 1986. "Types and Timing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7, September: 250-264.

- Kessler, Ronald C. and Jane D. McLeod. 1985. "Sex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620-631.
- La, Rocco, J. M., J. S. House., and J. R. P. French.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2-218.
- La Rocco, J. M. and A. P. Jones. 1978. "Co-Worker and Leader Support as Moderators of Stress-Strain Relationships in Work Sit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629-634.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Lazarus, Richard and Susan Folkman. 1984. "Coping and Adaptation," in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Pp. 282-325, ed. by Doyle Gentry.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Levinger, G., and L. R. Huesmann 1980. "An "Incremental Exchange" Perspective on the Pair Relationship." in *Social Change: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165-188. ed by K. J. Jurgen, M. S. Greenberg, and R. H. Willis. New York: Plenum.
- Lin, Nan and Walter M. Ensel. 1989. "Life Stress and Health: Stressors and Resour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83-399.
- Lin, Nan. 1986.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Pp. 17-29 in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ed. by Nan Lin, Alfred Dean and Walter M. Ensel. Orlando, FL: Academic Press.
- Menaghan, Elizabeth G. 1982. "Assessing the Impact of Family Transition on Marital Experience." Pp. 90-108 in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ed. by H. I. McCubbin, A. E. Cauble and J. M. Patterson. Springfield. IL: Thomas.
- Mitchell, R. E., A. G. Billings, R. H. Moos. 1982.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 77-98.
- Pearlin, Leonard.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3): 241-256.
- Pearlin, Leonard.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Pp. 3-32 in *Psychologic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ed. by Howard B. Kaplan. New York: Academic Press.
- Pearlin, L. I. and C. Schooler.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eis, H. T. "Social Interaction and Well-being".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Repairing Personal Relationships*. Pp. 21-45. ed. by S Duck. London: Academic Press.
- Scambler, Graham and Paul Higgs. 1999. "Stratification, Class and Health: Class Relations and Health Inquires in High Modernity." *Sociology* 33(2): 275-296.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Turner, Blake. 1995. "Employment Context and the Health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213-229.
- Turner, R. Jay. 1983. "Direct, In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pp. 105-155. in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ed. by h. B. Kaplan. New York: Academic Press.
- Turner, R. Jay.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Wheaton, Blair. 1985. "Models for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December): 352-364.
- Wills, T. A. 1985.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61-82. ed. by S. Cohen and S. L. Syme. New York: Academic Press.